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 및 원칙¹⁾

신 정 섭²⁾

한국생태문화연구소

생태관광과 프로그램

이제까지 자연이나 생태계를 대상으로 한 관광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미(美)나 희귀성, 가치, 경관 등을 관람하거나, 이용, 구매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자연의 형성과정, 생태계의 천이, 네트워크, 인간과의 관계 등을 관광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일부 자연물이 지니고 있는 전설이나, 형성의 원리, 보전의 필요성 등을 이야기로 만들어 관광에 이용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기는 하였으나 한정된 사례일 뿐이었다. 물질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도시에서 사는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

서, 복잡하게 돌아가는 사회구조에서 시달리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관광을 통해 자연을 만나고, 단순히 자연을 바라보기만 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자연을 만져보거나 느끼면서 체험하는 것을 원하게 되었다. 생태관광(Ecotourism)이 관광의 한 영역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이다.

생태관광협회(The Ecotourism Society)는 생태관광을 “자연자원의 보전이 곧 지역주민의 편익이 될 수 있는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면서,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자연지역으로 떠나는 의미있는 여



그림 1.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태관광지인 울릉도 나리분지(좌)와 국립생태원의 에코리움(우)

1)Development Direction and Principles of Ecotourism Program

2)SHIN, Jeung-Seub, Korea institute for Ecology and Culture; E-mail: greenspace@naver.com

행”(The Ecotourism Society, 1991; 환경부, 2002에서 재인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토의 2/3 이상이 산림이고, 삼면의 바다 중에서 서해와 남해를 중심으로 생명의 보고인 갯벌을 품고 있는 우리나라에 생태관광의 발전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국토의 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에서 자연자원을 보전하면서도 관광에 이용하는 생태관광은 국토의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생태관광은 기존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가능한 개발을 억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친환경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개발한다. 관광객들에게 체험을 통한 교육효과를 얻으며, 자연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재고하는데 집중한다. 그리고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주민의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생태관광은 관광을 통해 기존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잘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광활동을 통해 생태적으로 부족했던 점까지 보완할 수 있는 보전의 개념을 중시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의 생태관광 관련 사업지에서 자연환경 보전 활동은 미미한 편이다. 대부분의 생태관광지에서는 방문객의 수에 집착하고, 인프라의 구성에 집중하기 때문에 선행되어야 할 자연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이나, 수용력, 현재 및 미래의 생태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같은 사업은 등한시 되는 경우가 많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수용력에 관한 것으로 생태관광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많은 지역에서 수용력은 우선시되고 있지 않다. 생태관광을 실시하는 지역의 생태자원은 관광객에 대해 일정수준의 내성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 내성한계를 초과해 관광객을 수용할 경우 해당 생태자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훼손이 일어나게 된다. 생태관광 프로그램은 시설처럼 정형화 된 것이 아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생태자원에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프로그램의 유연성은 적은 비용을 가지고 보다 나은 생태관광을 누릴 수 있는 바람직한 수단이다. 그렇지만 사업을 중심으로 한 국내의 생태관

광지에서는 프로그램 보다는 예산을 중심으로 한 시설의 설치에 치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도 지역의 특수성이나 생태자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화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관광을 위한 각종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지역의 사업주체가 사업을 수행 과정에서 프로그램에 의한 생태관광의 접근을 의도적으로 우선순위의 뒤쪽에 두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제는 생태관광이 몇몇 전문가의 수준에서 논의 되던 시대를 지나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태관광을 이야기하고 관광현장에서 만나길 원하는 시대이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수적인 요소로 인식되던 단계에서 생태관광 자체를 운명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에 공감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많은 비용을 들여 생태관광지를 시설 중심으로 조성하는 것이 수준 높은 생태관광을 즐기는 것을 방해하거나 심할 경우 생태관광지를 훼손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우리의 인식이 생태관광을 수려한 자연환경이나 희귀하거나 보전가치가 높은 생태자원에 한정시킨다 해도 잘 개발, 적용된 생태관광 프로그램은 생태관광의 외연을 기존의 개념보다 훨씬 넓게 확장시켜준다. 이런 생태관광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바로 복원생태관광(또는 생태복원관광, Restoration Ecotourism, 앞으로 Recotourism으로 표현할 것을 제안함)이다. 복원생태관광(Recotourism)은 훼손된 생태계나 복원이 필요한 생태계를 찾아 생태계 훼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복원활동 하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관광의 한 줄기이다. 복원생태관광(Recotourism)의 개념은 생태계를 관찰하거나 체험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태관광 대상지의 생태계를 보호하거나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로 보전, 복원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훼손이나 오염된 생태계는 훼손 이전의 수준으로 생태계가 개선되도록 정화, 복구, 복원, 개



그림 2. 태안 유류오염 당시 자원봉사자들과 공무원의 정화작업(좌)과 유류로 오염된 굴양식장(우)

선, 보전, 모니터링 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다. 태안지역에서 바다에 기름이 유출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자원봉사의 형태로 태안을 찾아 기름찌꺼기를 제거하고 오염된 해안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애를 썼다. 이후 태안을 다시 찾아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마음을 다시 잡는 관광 활동을 블랙관광(Black Tourism), 또는 다크관광(Dark Tourism)이라고 한다. 일종의 리마인드관광(Remind Tourism)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복원 생태관광(Recotourism)은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한 관광이 아닌 모니터링, 2단계 복원사업의 참여와 같은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체험으로 바꾸어 생태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직은 개념의 정립과 범주의 설정이 더 필요한 생태관광의 한 형태이나 프로그램이 생태관광에 있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적합한 관광이라 할 수 있다.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은 그동안 많은 보고에서 강조되어 온 생태관광의 기본원칙인 ‘자연환경의 보전’, ‘관광객의 환경인식제고’, ‘지역주민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편익 보장 및 증대’(환경부, 2002)와 결을 같이 한다. 이상에 제시된 문장을 방향에 대한 설명을 위해 아래의 문장으로 치환하고 그에 대한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생태관광 프로그램개발의 기본방향

- 생태적인가?
 - 지속가능한가?
 - 통합적인가?
-

생태적인가?

생태관광의 주된 요소는 생태자원을 포함한 생태환경이다. 생태환경의 관리는 인간 중심의 관리가 되어서는 안되며, 생태자원과 생태자원이 포함된 생태계(ecosystem)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생태관광 프로그램은 생태계를 관계의 관점에서 읽어 내는 것이며, 살아 있는 생태계를 체험을 통해 느끼거나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순천은 생태관광도시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는 곳으로 순천만으로 흘러드는 동천하구 일대의 갈대군락과 모새달군락, 염생식물인 칠면초군락이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갯벌을 중심으로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순천만이 알려지면서 관광을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으며, 이제는 넓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어 들어가 방문자센터와 갈대밭을 돌아보고 용산전망대에 올라가 순천만을 바

라보며 갯벌과, 노을, 갈대, 칠면초가 만들어 내는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한다. 여기에서 그친다면 이것은 기존의 경관을 감상하는 대중관광과 다르지 않다. 물론 순천만은 대중관광지로서도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생태관광으로 유명한 순천이라면, 순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생태관광을 체험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순천만에 적합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순천만에 적합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과연 ‘생태적인 것인가?’라는 질문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제대로 된 생태관광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순천만에서 도입할 수 있는 생태적인 프로그램은 어떤 것일까? 예를 들면 ‘순천만의 갈대밭은 어떻게 생성된 것인가?’와 같은 질문을 갖게 하고 그 답을 생태관광지인 순천만을 돌아보며 깨달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체험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갈대뿐만이 아니라 순천만에서 만날 수 있는 칠면초, 모새달, 갯개미취, 갯질경이, 나문재와 같은 염생식물들을 찾아보고 분류와 생태적인 학습까지 할 수 있는 ‘순천만의 염생식물 찾아가기’ 같은 프로그램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순천만 갯벌을 채취해 깊이 별로 변하는 시간의 모습을 살펴보는 ‘갯벌의 역사’, 하구를 왕래하는 유람선을 타고 ‘갯골에 분포하는 저서생물 관찰하기’, ‘빨배 타고 갯벌의 생물 만나기’, ‘미나리짱의 생물탐사’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순천만에 적용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가?

생태관광에 있어서 지속가능한가 하는 것은 생태환경과 지역주민, 관광객 모두의 문제이다. 생태환경이 지속성을 가져야만 생태관광을 계속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인 사안들도 지속가능해야만 생태관광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관광객들의 생태관광은 생태환경과 지역주민의 건전성이 보장될 때에 가치가 높아진다. 지역주민이 안내자가 되어 생태관광객을 직접 만나 함께 체험하고 안내와 보호, 감시의 역할을 같이 수행할 수 있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은 지속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프로그램이 주민에게 체득화 된 것으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지역의 환경을 보전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태관광 프로그램은 대부분 적은 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규모가 적기 때문에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적고, 안내자와 관광객의 공감대가 넓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통합적인가?

생태관광지역은 관광대상과 관광주체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다. 입장에 따라서는 생태관광 대상이 생태관광의 주체가 될 수도 있으며, 생태관광의 주체가 관광의 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생태관광이 서로 다른 요소들끼리 유기적인 통합성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 한다. 생태환경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국립공원이나 보호지역의 경우 다양한 규제는 그



그림 3. 순천만의 동천 하구에서 볼 수 있는 모새달-갈대군락(좌)과 염생식물인 칠면초군락(우)

곳에서 살아가는 지역 주민의 생활 방식을 바꾸어 놓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은 대상이 되는 자연환경은 물론 그 환경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과 지역주민 모두를 유기적인 관계로 인식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데 주력해야 한다. 생태관광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의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질 때 프로그램 개발의 목적인 관광객이 수준 있는 여행경험을 통해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 지역사회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삶의 질 개선이라는 열매를 얻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자연환경은 체계적인 환경보전과 관리를 통한 지역 환경의 질 보전이라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의 원칙

생태관광은 대부분 많은 관광객을 수용하는 대중관광이 아닌 소규모의 목적관광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시설보다는 프로그램에 의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대부분의 생태관광을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사업의 중심을 프로그램에 두고 있다.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원칙은 이미 개발되어 2013년부터 시행중인 생태관광 인증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생태관광인증이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지만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인증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인증을 위한 평가원칙을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개발의 원칙으로 적용해도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으며, 향후 생태관광의 기준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를 직접 대입하기에는 무리가 많으며, 아직 다양한 시도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다. 그렇지만 이번 제안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논의 한다면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에서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원칙을 생태관광 인증 평가원칙에 대입하여 기술하고, 내용의 설명을 생태관광시범사업과 생태관광지역지정, 생태관광 인증 등의 국가사업에서 사례를 찾아 대신하고자 한다. 국가사업의 단점을 논의 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례의 연구이므로 긍정적인 시선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나 매끄럽게 다루지 못한 점도 있다.

생태관광 인증 매뉴얼에서는 인증을 위한 평가원칙을 6가지로 크게 구별한다. 6가지의 평가원칙은 1. 친환경 개발원칙, 2. 책임 있는 사업경영 원칙, 3. 환경보전 원칙, 4. 양질의 관광경험 제공 원칙, 5. 책임 있는 관광행동 유도 원칙, 6. 지역참여와 편익 창출 원칙 등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친환경 개발원칙

생태관광의 프로그램 개발역시 인증과 마찬가지로 친환경 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필요로 한다. 친환경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질적인 경관을 형성하거나 생태환경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을 지니고 있다. 인증에서의 입지선정이나, 토지이용, 건축설계, 공사시행의 영역은 주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장소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한다.

미국의 버진아일랜드 국립공원 내 시범 개발된 ‘마호베이 캠프(Maho Bay Camp)’의 시설지침은 생태관광지역에서의 시설의 운영에 대한 한 예를 보여 주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생태관광 인증 매뉴얼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매우 구체적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된 기준들을 따라 시설의 설치가 이루어질 때 프로그램의 개발역시 시설의 설치기준을 적극 반영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시설의 적절한 활용을 전제로 해야 한다.

국내의 생태관광사업은 이제까지 시설의 설치에 많은 비중을 두어왔으며, 이제 프로그램의 개발에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상태이다. 생태관광지역에 설치된 시설 중에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사전에 고려했다면 보다 좋은 결과

표 1. 마호베이 캠프(Maho Bay Camp)의 시설관리 지침의 내용

번호	시설 관리 지침
1	각 시설물은 현장 가공이나 타설 보다는 조립하고 중장비를 동원하지 않는다.
2	각 시설은 해당지역의 기후(풍향, 일조, 강우, 기온)를 고려하고, 자연재해(태풍, 집중호우, 산사태, 화재, 지진)를 고려해 입지 및 자재를 선택한다.
3	시설디자인은 자연상태로 복구 가능하도록 총체적이고 생태적인 디자인을 한다.
4	체류시설은 에너지 저소비형, 공조와 냉방은 수동적이고 자연적인 기법 사용, 난방은 단열소재를 사용하고,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순환 방법등을 사용한다.
5	처마선을 길게하거나 수목식재를 통해 그늘을 조성하고, 지붕은 태양광을 반사하는 재료를 선택한다.
6	보도는 목재데크를 사용하고 지형변형을 최소화 하며, 굴착없이 전기, 가스, 수도관은 테키의 하브에 고정 시킨다.
7	지붕은 우수를 집수하게 하고, 모여진 물은 재활용한다.
8	식물식재는 향기가 있고, 화려한 수종을 선택해 야생조류를 유인하도록 하며 차폐식재를 한다.
9	가구, 기구는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고, 조명기구는 조도를 낮추고, 직접조명을 사용한다.
10	물, 가스, 전기는 계측기를 설치해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팬이나 조명은 타이머를 이용해 절약 할 수 있도록 한다.
11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미생물 발효 정화조를 이용한다. 발효시킨 물은 조경용으로 사용한다.
12	폐수는 정수처리를 통해 중수와 오수로 분리하고 재활용한다.

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들도 많아 이에 대한 이야기를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새로운 운영방안을 찾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언급한다. 서산 버드랜드에 조성된 조류테마 미로정원의 경우 버드랜드의 주제에 맞춰 조류테마라는 이름을 붙였으나 실제 조성된 정원의 모습에서는 주제의 의미를 느끼기가 어렵다. 이것은 기존의 입지에 적합하지 않

은 이질적인 요소이며, 식재된 수종도 주변의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수종으로 생태관광의 체험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이미 설치된 이들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활용가치를 높여야 한다.

건축물의 경우 생태관광 지역의 입지 환경과 맞지 않을 경우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한다 해도 이질감을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



그림 4. 서산 버드랜드에 있는 조류테마 미로공원의 모습



그림 5. 태안군 신두사구의 사구센터(좌)와 사구내의 이용되고 있지 않은 집(우)

다. 태안의 사구센터는 제주의 현무암을 들여와 지어진 것으로 사구라는 이미지와는 다른 화산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이질감을 느끼게 한다. 반면에 주변의 환경과 비교해 이질적인 요소라 해도 새로운 경관을 형성하거나 적절한 프로그램이나 관리 방안을 도입했을 때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신두사구 내에 있는 개인주택은 붉은색 지붕을 한 눈에 띄는 외관을 하고 있어, 신두리사구의 외래식물 제거사업시 함께 철거하기로 예정된 건물이다. 하지만 이 건물의 경우 오랜 시간 사구를 걸어온 이들에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으며, 사구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연구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이다. 오랜기간 방치되었음에도 집도 낡지 않고 조금만 보수하면 이용가치가 높은 건물이다.

울릉도의 사동항이 바다로 보이는 간령마을은 사동항이 들어서고 주변이 개발되면서 간령마을을 바람으로부터 지켜주던 곰솔숲이 2014년 들어 모두 베어졌다. 베어진 곰솔숲 안 쪽으로는 산림청 울릉국유림 사업소가 있고, 울릉자생식물원이 있는데 이들도 개발과 함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사동항에 비행기 활주로나 개설되면 바다를 막기 위해 가두봉을 잘라 내 바다를 메우는데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럴 경우 통구미 해안의 물리적 변화는 물론 이 일대가 생태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책임 있는 사업경영 원칙

책임 있는 사업경영의 원칙은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그림 6. 울릉도 사동항의 간령마을과 가두봉 전경(좌)과 곰솔림이 훼손된 간령마을 입구의 언덕(우)

표 2. 생태관광 인증 매뉴얼 상의 평가 6원칙에 바탕을 둔 인증기준과 원칙의 영역별 내용(문화체육관광부, 2013)

평가원칙	영역	비고
1. 친환경 개발 원칙	입지선정	보전가치, 자연생태계,
	토지이용	식생보전, 토양손실, 지형변형, 자연배수
	건축설계	친환경 건축재료, 역사적·문화적 정체성, 경관과 조화, 이용편의, 기존건물의 재보수, 야생동물 이동, 수목의 높이, 이질적 요소, 자생식물조경
	공사시행	공정단축, 온실가스, 훼손지역 복원
2. 책임 있는 사업경영 원칙	법준수	허가, 위법
	보험	관광객 보호
	사업계획	수립, 수정, 경영주의 실천의지, 재무건전성
	인력관리	직책과 역할, 채용·교육·평가, 직원훈련
	고객서비스	지침, 불만관리, 정기적, 개선전략, 침구류
	위험관리	계획수립, 대피, 훈련, 응급구호품
	홍보마케팅	마케팅조사, 표적시장, 정보제공
3. 환경보전 원칙	실행적 환경관리	관광객수, 수용력, 행동강령, 평가, 환경관리매뉴얼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자연채광, 동작감지센서 조명, 에너지효율, 단열, 개별냉난방 조절, 가전기구의 최소화
	물관리	빗물재활용, 수건·침구류 재사용, 자동잠금수도꼭지, 물절약, 친환경세제, 샤워기
	쓰레기관리	일회용품 억제, 전자홍보, 폐기물 수거 및 처리지침, 포장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활용
	소음·대기질관리	소음최소화, 금연
	녹색실천	녹색구매, 재활용, 소모품, 친환경, 재생지, 비표백지
	친환경 교통수단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친환경 차량관리, 친환경에너지, 적절한 차량 수
	보전기여	자연보전기금, 자연보전활동, 파트너십, 야생생물보전
4. 양질의 관광경험 제공 원칙	자연경험초점	방문동기, 활동시간, 오감체험
	문화경험초점	지역 주민의 생활 체험
	해설서비스	전문가이드, 프로그램진행, 교육프로그램, 정보제공, 해설가 소개, 해설서 제공
	해설계획과 실행	실행계획, 모니터링, 서비스개선, 해설실무 매뉴얼
5. 책임 있는 관광행동 유도 원칙	친환경적 행동	가이드, 행동지침, 이동경로, 피해최소화, 번식기, 플래시를 이용한 사진 촬영, 자원의 반출금지
	친사회문화적행동	지역 고유문화 설명, 지역주민의 반응 수립
6. 지역참여와 편익 창출 원칙	복지후원사업	경제적지원, 지역에 시설과 서비스 제공
	지역역량강화지원	교육훈련 지원, 직업교육, 멘터링서비스
	지역협력	관광이슈에 대한 의견개진, 협력, 의견수렴
	편익제공	주민고용, 지역생산물, 지역 시설 홍보, 지역상품 구입. 소개, 프로그램. 음식, 주민운영

한 요소이다. 지역에서의 생태관광 주체는 지역주민이 되어야 하는데, 훈련되지 않은 지역주민은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가 많다. 이의 극복을 위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같은 사업의 형태를 띤 운영주체가 형성되게 된다. 이제까지의 지역에서의 사례를 볼 때 생태관광 사업체로 발전하는 예는 지역의 대표적인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서 시작된다. 평창의 백룡동굴의 안내를 맡아 하던 주민협의체에서 사업체가 발전해 현재는 민물고기 생태관을 위탁경영하기도 하며, 마하생태관광지에서 자연다큐학교, 아토피 치유학교, 인터넷 중독 치유캠프 등을 운영하기도 한다. 제주도의 선흘1리는 동백숲을 중심으로 (주)제주생태관광과 함께 선흘1리 마을 주민이 주도하는 생태관광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슬로우시티인 증도의 경우 주민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적기업인 길벗여행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관광사업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생태관광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환경보전 원칙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환경보전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환경관리와 에너지관리, 물관리, 쓰레기관리, 소음·대기질관리, 녹색실천 등의 세부내용은 모두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생

태관광 시범사업지역이거나, 생태관광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에너지와 물 관리와 같은 시설을 온전히 갖춘 건물이 적은 편이다. 심지어 생태관광 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진 건물에도 친환경적인 시설을 갖춘 곳이 적기 때문에 향후 생태관광 사업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사업이 진행되기 이전에 지역주민과 행정부처간의 충분한 교감이 있어야 한다. 환경보전의 원칙 중에 실행적 환경관리는 다른 사항들에 비해 비교적 잘 지켜지는 항목 중의 하나이다. 생태관광지에서 수용력은 생태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의 수를 결정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생태관광 사업 초기에 반드시 선행되어 조사되어야 하는 항목이다. 수용력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약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방문객의 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평창군의 백룡동굴이나 울릉도 나리분지 주변의 원시림 같은 곳은 예약제를 이용해 자연이 수용한계를 넘어서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창녕 우포늪에 있는 목포와 쪽지벌 주변 도로는 아직 비포장이며, 주말이면 이 길을 따라 차를 타고 들어와 사진을 찍는 관광객의 수가 많은 곳이다. 이 때문에 탐방로를 걷는 관광객들은 자동차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농사를 짓기 위해 자동차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 역시 교통사고의 위험과 먼지의 비산으로 인해 관광객과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



그림 7. 제주 선흘리의 동백동산 습지(좌)와 동백동산 숲탐방(우)



그림 8. 창녕 우포의 목포늪 전경(좌)과 목포늪과 쪽지벌 옆으로 나 있는 비포장 도로(우)

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별도의 도로를 개설하고 기존의 도로는 관광객이 이용하는 방안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곳의 경우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적절한 도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비포장도로의 경우 외부 차량의 출입을 막고 농사를 짓고 있는 현지 주민의 차량만을 통과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지금의 비포장도로는 걷는 길로만 개방할 필요가 있다.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은 자신이 원하는 생태사진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시간을 투자해 걸어야 하는 수고를 감내할 필요가 있다. 농민들의 경우 협약을 통해 본 구간에서는 시속 30 km 이하의 속도로 차를 운행하게 하면 도보 관광객의 사고 위험은 거의 없앨 수 있다. 이 방법은 도로 개설을 통한 또 다른 환경 훼손의 논란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운영 프로그램의 적절한 개발로 주변환경을 보전하고 목표로 하는 생태관광객의 유도도 함께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

양질의 관광 경험 제공 원칙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양질의 관광 경험 제공 원칙은 자연경험, 문화경험, 해설서비스, 해설계획과 실행으로 영역을 구분할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관광의 최근 추세

는 개인, 또는 가족단위의 소규모이거나, 체험이나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여러 코스를 한번에 답사하는 관람 위주의 관광 보다는 방문지가 적어도 깊이 있는 관광이나 휴식할 수 있는 관광의 형태를 원한다. 생태관광은 이런 양질의 경험을 원하는 관광에 가장 적합한 관광이며, 생태관광지에서 양질의 관광 경험을 하는 것은 대부분 질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전라북도 진안군의 경우 다양한 생태자원의 개발 보다는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마실길을 중심으로 생태관광을 접근한 경우이다. 각 마을의 문화자원들을 조사하고, 마을과 마을을 연결해 주는 마실길을 ‘진안고원길’이라고 이름 지은 후 이 길을 관리, 운영 하는 단체인 진안고원길을 중심으로 생태관광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진안군의 생태관광은 많은 돈을 들여 시설을 설치한 후에 생태관광을 논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프로그램을 통해 비용은 적게 들이면서도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주민과 이곳을 찾은 관광객이 생태자원과 지역문화를 질 높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안군의 생태관광 프로그램으로는 ‘바람이 오는 고원길에 서다’, ‘진안고원길 달빛걷기’ 같은 걷기 프로그램이나, 고원길 생태관광지도 제작, 고원지기 양성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림 9. 진안고원길 1구간 고개너머 백운길의 전경(좌)과 길의 초입에 있는 영모정의 모습(우)

책임 있는 관광 행동 유도 원칙

생태관광은 건전한 자연환경을 찾아가 다양한 생태자원을 관광에 이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생태관광은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호하고 보전한다는 기본원칙을 전제로 한다.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책임 있는 관광행동 유도 원칙은 친환경적 행동과 친 사회 문화적 행동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친환경적 행동은 가이드나 행동지침을 통해 이동경로를 제한하거나, 번식기의 회피, 카메라의 플래시 켜지 않지, 자원을 반출하는 행위 금지하기 등이 해당된다. 친 사회 문화적 행동은 지역 고유문화의 특성과 장단점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설명에 포함시키며, 지역주민의 반응을 수렴하는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생태관광지에서의 친환경적 행동에 해당되며,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익히고, 지역주민과 만나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것은 친 사회문화적 행동에 해당된다. 이런 방법을 적용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책임 있는 관광행동을 유도해낼 수 있는 것이다. 평창군 마하리의 주민들은 백룡동굴의 하루 입장인원을 제한하고, 백룡동굴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함께 동행하며 동굴의 다양한 자원을 해설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백룡동굴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동굴 안의 생물들에 대한 보전과 동굴의 자원을 몰래 반출하는 것을 감시하는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지역참여와 편익 창출 원칙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참여와 편익창출의 원칙은 복지후원사업, 지역역량강화 지원, 지역 협력, 편익 제공의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개발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전제로 해야 하며, 이것은 지역 주민을 포함한 지역의 여러 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직접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자체 등에서 멘터링 서비스와 같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으며, 향후 지역주민 스스로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지원이나 직업교육 등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시켜 주어야 한다. 생태관광을 도입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생태관광 해설사나 자연환경 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역량강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관광객을 위한 편익제공은 지역의 참여를 통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지역생산품의 판매, 지역시설의 홍보, 지역상품 구입, 소개, 음식, 주민운영, 프로그램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초기 사업은 대부분 지역 고유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방문자 센터, 지역 협의체의 구성 및 정착 등에 집중하게 된다. 한 지역에서 프로그램의 초기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하게 되면 지역이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문제에 직

면하게 되는데 이때는 중앙 정부나 지자체로부터의 사업지원 비용이 끊기는 시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시점을 위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의 독립 및 지속가능한 운영, 지역 내 갈등조절, 지역의 비전 재수립과 같은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멘토 그룹의 변경, 갈등조절과 같은 새로운 관점에서의 주민교육 등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 해결 역시 지역 참여와 편익 창출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실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곽행구, 2006, 해안자원의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 이상엽, 2004,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서산시를 중심으로- 한국토지행정학회보 11(1): 1-28.
- 문화체육관광부, 2013, 생태관광 인증 매뉴얼.
- 환경부, 2002, 생태관광 지침개발 및 활성화방안.
- The Ecotourism Society, 1991, The Ecotourism Society : An action agenda. In J. A. Kustler (ed). Ecotourism resource conservation. Omnipress, Madison. WI.